

환경계소식

인사발령

(1988. 4.14일자)

*원주환경지청장

정국현

*감사담당관

서동현

*해양보전담당관

이광훈

*환경관리공단

기획부장(1988. 4.20일자) 김기준

해 특집방송이 되었으며, 환경관련 소속기관 및 단체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본 캠페인에는 본연합회 및 전국 지역협의회도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환경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전국민이 자가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오는 등산윤리 및 환경보전의식을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캠페인전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환경관련지 발행인 초청

朴청장 간담회 개최

박판제환경청장은 지난 4월 14일 방배동 소재 K음식점에서 국내 환경관련 주간신문과 월간지의 발행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청장은 5개월여 앞으로 임박한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루는데는 무엇보다 폐적한 환경구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환경시책 수행에 전문지들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연합회 이용운회장은 환경관련인들의 현위치를 상세히 밝히는 한편 환경보전의 첨병인 환경관리인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관한 제안을 강력히 시사하였으며, 참석한 7개 전문지 발행인들은 환경보전의 대명제에 뜻을 같이하고 동역자로서 힘을 다하자고 다짐하였다.

—제곡을 살리자—

환경캠페인 전개

심각한 환경훼손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산과 계곡을 살리기 위해, 환경청은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5월 1일, 북한산, 설악산, 월악산, 지리산, 팔공산, 한라산 등 전국의 6개 명산에서 전설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 시·도청의 협조아래 개최될 이번 캠페인은 MBC라디오와 텔리비전을 통

사무실 이전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인 주식회사 晶水엔지니어링(대표·박창길)에서는, 지난 4월 16일 그동안의 다져온 기술을 더욱 신장시키며, 새롭고 우수한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사세를 확장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서울·구로구 구로동 100번지 6호

(구미빌딩 202호)

☎ 866-0163~4

● 측정기기 판매 및 제작·수리업체인 신홍기계상사(대표·홍성원)는 지난 4월 10일 사세를 크게 확장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2

(동양빌딩 607호)

FAX/ (02) 272-0778

☎ 274-0265, 277-1453

YANG FLOC 대리점 개설

수처리약품 전문업체인 (주) 聖友實業(대표·김성훈)은 지난 4월 1일 부로 이양화학(주)에서 생산되는 고품위 고분자용접제(YANG FLOC) 대리점을 개설하고 더욱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업지역: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8-15

☎ 675-5149, 675-5649